

TWA가 베르니케실어증 환자의 재청각화에 미치는 효과

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,¹ 음성언어치료실²

서인효² · 정필상^{1,2} · 이상준¹

목 적 :

베르니케실어증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전통적 기법은 청각적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청각변별력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. 그에 반해 Helm-estabrooks 등(1991)에 의해 개발된 TWA(Treatment for Wernicke's Aphasia)는 읽고 이해하기(reading comprehension), 구두읽기(oral reading), 따라말하기(repetition)등의 과정을 통해 재청각화(reauditorization)를 유발하여 청각이해력(auditory comprehension)을 향상시키는 언어치료프로그램이다. 본 연구자들은 TWA가 베르니케실어증을 가진 한국인의 재청각화에도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하였다.

방 법 :

청각자극을 통한 단 단어 처리과정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중고도(moderate to severe) 베르니케실어증을 가진 46세의 남자 환자를 대상으로 TWA를 실시하였다. 연구설계는 행동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실시하였다. 각 반응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행동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하고,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치료효과를 확인하였다.

결 과 :

읽고이해하기, 구두읽기, 따라말하기의 향상을 통해, 청각이해력도 향상되었다. 뿐만 아니라 명명하기도 향상되었다. 이러한 결과는 TWA가 베르니케실어증을 가진 한국인의 재청각화에도 효과적임을 나타낸다.